

**날짜:** 5786 년, 11 월 17 일 (2026 년 2 월 4 일)

**토라 문:** Yitro (이드로)

**주제:** 변화할 용기

우리는 이트로(Yitro)가 시나이산에서의 **마탄 토라**(Matan Torah, 토라 수여) 이후에 광야로 왔다는 사실을 배우고 받아들였습니다. 더욱이 성경은 "땅 끝에서 이방 민족들이 주께 와서 이르기를"(예레미야 16:19)이라는 구절로 이를 뒷받침합니다. 이 구절은 마탄 토라의 여파로 적어도 한 명의 비(非) 이스라엘인이 하셈(Hashem)께 나아왔음을 암시하며, 광야에서 이트로 외에 이스라엘에게 다가온 비 이스라엘인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미드라쉬(Midrash)는 하셈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열방 중 영적으로 민감한 개인들이 영감을 받아 이스라엘의 엘로힘(Elohim)의 신성과 위엄을 인식하게 된다고 가르칩니다. 탈무드(Zevachim 116a)는 하셈께서 시나이산에서 토라를 주실 때 세상 나라들이 그 소리에 두려워하며 발람(Balaam)에게 달려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물었고, 그는 "야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어"(시편 29:11)라고 답했다고 설명합니다. 라쉬(Rashi)는 토라가 이처럼 묘사되는 이유가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의 **힘**(רֵץ; oz, 오즈)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관찰에 기초하여, 쎄뮌 미슈무엘(Shem MiShmuel)은 **오즈(oz)**라는 용어가 **영적인 용기**의 특성을 묘사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삶의 도덕적 도전에 맞서 일어서고, 과거의 실패로 인해 낙담하려는 성향을 견뎌내는 능력입니다.

미드라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평판이 좋지 않았던 여인 라합(Rahab)과, 바로의 전 고문이자 알려진 모든 형태의 우상 숭배에 종사했던 이트로가 어떻게 자신들이 평생을 잘못된 길에서 살았음을 인정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실수를 바로잡고 자신을 정결케 하여 엘로힘의 선택된 백성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믿을 수 있었을까요?

미드라쉬는 엘로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그들이 직면할 수 있는 어떤 영적 도전이나 고난도 견딜 수 있게 하는 내면의 힘과 용기인 **오즈(oz)**를 부여하셨다고 답합니다. 또한, 엘로힘께서는 이 속성의 일부분이 그 대열에 합류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전달되도록 정하셨습니다. 이러한 용기의 정신은 잠재적인 개종자들에게 자신의 대의가 절망적이지 않으며, 영원으로 나아가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문이 열려 있다는 믿음을 요새처럼 튼튼하게 세워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뒤편에서 빠르게 진격해오는 이집트군을 마주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모세가 확신시킨 엘로힘의 도우심에 고무된 그들은 공황에 빠지거나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힘을 모아 바다로 뛰어 들었으며, 물이 콧구멍에 차오를 때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아낌없는 믿음의 공로로 엘로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 아래 마른 땅을 드러내셨습니다. 이 구원을 가능케 한 용기에 대한 헌사로서, 안전하게 바다를 건넌 후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출애굽기 15 장).

라합은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최악된 삶에서 벗어나 최고의 의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뎌내기 위해 그 힘(*ru; oz*)을 끌어올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솔로몬은 "야훼께서 자기 왕에게 힘(*ru; oz*)을 주시며"(사무엘상 2:10)라고 말합니다. 엘로힘께서는 솔로몬에게 용기를 복으로 주셨고, 그 결과 그에게 복종하던 나머지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용기의 일부가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이 스바 여왕으로 하여금 솔로몬의 위대함을 목격하고 하셈께 웅변적인 찬양을 드리게 한 동기가 되었습니다(열왕기상 10 장).

이와 같이 우리가 토라를 받았을 때, 우리에게는 힘과 용기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이트로가 이스라엘에 합류하기로 결심했을 때, 그 역시 영적인 용기를 주입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이전의 우상 숭배에 대한 집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와서 합류할 수 있는 불굴의 정신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사건 이면의 사상은 다음 구절로 요약됩니다. "야훼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의 피난처시여 민족들이 땅 끝에서 주께 와서 이르기를"(예레미야 16:19). 엘로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적인 용기라는 특성을 부여하셨습니다. 야훼는 "나의 요새"(*'ruḡ; u-ma-'uz-zi*)이시며, 이는 그분께 합류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동일한 특성을 전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야훼는 "환난 날의 피난처"(*'u-nu-ḡ; u-me-nu-si*)이십니다. 우리가 역경에 직면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고, 홍해 앞에 섰던 이스라엘 자손들처럼 영혼을 고양시켜 하셈께 손을 뻗을 수 있도록 우리를 강화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샬롬.